

發 刊 辭

琴浪 金哲洙 教授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停年을 맞이하셨음을 경하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金哲洙 教授께서는 1962년부터 모교의 교수로 부임하신 이래 격동하는 정치사 속에서도 입헌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학문에 정진해 오셨습니다. 특히 民主發展에 역행하는 維新憲法에 비판적인 견해를 발표하시고 지식인 서명에 참여하여 고통을 받으셨고, 헌법재판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여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후에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존중하는 재판을 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셨습니다. 또한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국제교류에 힘쓰셨는데, 이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수주의 헌법학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金교수님의 업적은 後學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법학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교수님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뜻에서, 이번의 法學 제39권 2호를 金교수님의 停年紀念號로 봉정합니다.

이 정년기념호의 발간을 위하여 김효전 교수께서 “金哲洙 憲法學의 全體像”이란 글을 기고해 주셨고 우리 법학연구소 상임연구원들께서 법학 각 분야의 논문 9편과 판례평석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玉稿를 보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랑 金哲洙 선생님의 건강과 家庭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1998년 8월 20일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
梁 承 圭